

금융IT 기술의 발전 추이

201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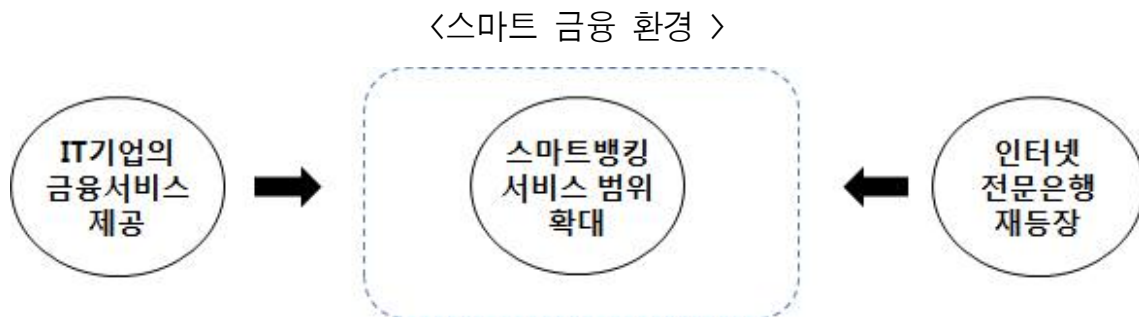
작성 : 김진완 수석연구위원
(kimjw@bsfng.com)

■ 목 차 ■

I . 검토배경	1
II . 금융IT 기술 발전 추이	2
1. 스마트뱅킹 서비스 범위 확대	2
(1) 플랫폼 확장	2
(2) 스마트뱅킹 앱 통합	3
(3) 알림 기능 강화	4
(4) 모바일 통장의 진화	4
(5) 프로세스 단축	5
(6) 고객 참여 확대	7
(7) 차별화 서비스 강화	8
(8) 웨어러블 banking	9
(9) 개발 예정 서비스	12
2.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	13
(1) 지급결제 분야	13
(2) 금융상품 판매	18
3.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21
4. 인터넷 전문은행	25
(1) 인터넷 전문은행의 채등장 배경	25
(2)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형태	26
<부록 1 :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현황>	28
<부록 2 : 사례 상세 화면>	33

I. 검토 배경

- 최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금융업간 그리고 금융업과 비금융 IT 기업간 경쟁이 심화
 - 은행들은 스마트 금융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스마트뱅킹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 및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진출 검토
 - 거대한 고객 인프라를 확보한 IT 기업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



-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금융기술의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경쟁력 저하 또는 과도한 투자 등이 우려
 - IT 투자의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분이므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투자나 인력 및 상품운용을 금융기술 발전에 상응하여 적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IT 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고 함

II. 금융IT 기술 발전 추이

1. 스마트뱅킹 서비스 범위 확대

(1) 플랫폼 확장

□ 스마트뱅킹(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은 이용자의 급증과 함께 조회·이체 등 고객 지원채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수신 상품 등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로 변화하고 있음

- 2014년 2/4분기 스마트뱅킹 등록고객 수는 4,298만명(중복 등록고객 포함)
-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상품 대비 금리 경쟁력으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 우리은행은 조회·이체 등의 banking거래와 예금·대출·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분리한 'New 원터치 스마트뱅킹' 구축,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상품을 기존 70여개에서 1,000여개로 늘리면서 상품 검색 및 가입 기능을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시중은행 스마트폰 전용상품 판매 실적 〉

구분	은행	실적
수신 상품	국민은행	○ KB Smart★폰 적금/예금 판매잔액 2조 7천억원(2014. 6월말) ○ KB말하는 적금 6만건 판매, 판매잔액 1,154억원(2014. 6월말)
	신한은행	○ 2013년 11월말 기준 스마트뱅킹 상품 판매 실적은 누적 최수 약 47만좌 누적 금액 약 1조 8,000억원 달성
	우리은행	○ 2014년 5월말 기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누적금액 8조 6천억원 규모의 상품 판매
여신 상품	하나은행	○ 스마트뱅킹을 통해 패밀리론, 직장인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포함한 16개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0.2% 포인트 우대 금리) ○ 스마트폰 신용대출잔액 2014년 7월말 기준 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68억에서 4배 가까이 급증
	우리은행	○ 2014년 1월 출시한 '우리 신세대 스마트폰 신용대출' 7월말 기준 대출 잔액 31억원(0.3% 포인트 우대 금리) ○ 2014년 8월 '스마트폰 전세론' 출시

자료 : 언론사 발표자료 요약정리

-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참고] IBK 기업은행 스마트 금융 전략

- 스마트 금융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IBK ONE' 통합 브랜드 출시
 - 17종의 앱 제공(IBK ONE banking, IBK ONE 알림, IBK ONE 앱통장, IBK ONE 간편뱅킹, IBK ONE 머니, IBK ONE 모임, IBK 흔들어 예·적금, IBK ONE 현장가입 등)
 - '내 손안의 브랜치'를 슬로건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강화
 - 앱들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확장
 - 게임 및 건강관리 기능을 연계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235개 상품 가입 가능)
-

(2) 스마트뱅킹 앱 통합

- 스마트뱅킹 앱의 속도 저하, 오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앱을 분리 운영하는 방법과 고객 편의성을 중시하여 하나의 앱에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 스마트뱅킹 앱을 서비스별로 분리하면 오류를 최소화하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고객은 필요 서비스별로 독립적 앱을 구동해야만 하는 불편 수반
 - 독립적인 앱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인한 속도저하 및 잦은 오류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나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 고사양화 및 무선 네트워크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음

〈 스마트뱅킹 앱의 통합과 분리 현황 〉

은행	서비스 내역
국민은행	KB금융그룹의 주요 서비스(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KB금융그룹' 통합 앱 제공
외환은행	기존 외환 M뱅크, 외환은행, 미니뱅킹, Global Banking, 스마트환전, 외환은행 찾기의 6가지 앱을 '외환 스마트뱅크'로 통합
하나은행	모바일통장뱅크북, 자산관리, 전자지갑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우리은행	앱의 주요 서비스만을 담은 'NEW 원터치 스마트뱅킹' 출시
신한은행	기본뱅킹 앱, 자산관리, 펀드센터, 상품별 관리 등 서비스별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

(3) 알림 기능 강화

□ 신한, IBK, 우리은행이 독립적인 알림앱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알림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은 문자메시지에 비해 낮은 고객도달률, 문자메시지 수수료 수입 감소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Varolii(2013년)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뱅킹에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기능은 계좌활동(입출내역, 청구서 지급, 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알림으로 조사됨

〈 국내 시중은행들의 알림앱 현황 〉

신한 Smile	IBK ONE 알림	우리은행 윈터치 알림
		
○ 가입자 수 88만명 ○ 입출금 내역 무료통지 ○ 대출이자 납입일, 예금만기일 통지	○ 가입자 수 100만명 ○ 입출금 및 카드내역 확인 ○ 카드 목표 초과알림 ○ 영문지원, SNS 공유 가능	○ 가입자 수 200만명 ○ 입출금 및 잔액 조회 ○ 각종 만기일 확인 ○ 모임회비 관리

(4) 모바일 통장의 진화

□ 종이통장을 모바일 통장으로 대체하면서 영업점 및 ATM 등의 오프라인 채널 프로세스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 모바일 통장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의 종이통장 발급 및 관리 비용 절감, 2015년까지 은행 종이문서의 50% 감축 권고(금융위원회, 2011년)에 대응 가능

< 모바일 통장의 발전 단계 >



[참고] 우리은행 모바일 통장

- 입출금 계좌를 비롯해 예·적금 계좌, 대출 계좌, 펀드·보험 계좌를 무제한 등록
- 입출금 거래 내용 무료 통지 및 고객 스스로 메모해 정렬·검색
- 거래 내용 보관 기한 10년
- 지점과 ATM에서 인증번호(5분마다 갱신) 6자리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출금 가능

(5) 프로세스 단축

- ☐ 스마트뱅킹 앱의 복잡한 거래처리 프로세스 단계를 줄여 나가거나 고객들이 앱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

※ 사례 : 로그인 전 계좌잔액 조회

- 미국 GoBank는 로그인 전에 하단의 슬라이드 바를 밀면 계좌잔액을 보여주며, 네덜란드의 Robo Bank는 스마트뱅킹 메인화면에서 연료 게이지로 비주얼하게 계좌잔액을 표현하면서 클릭할 경우 로그인 없이 구체적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은 계좌번호에 별칭(닉네임)을 부여하고, 별칭과 계좌잔액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개인정보 보안문제 해결
- 그밖에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예> 환율계산기, 대출계산기 등)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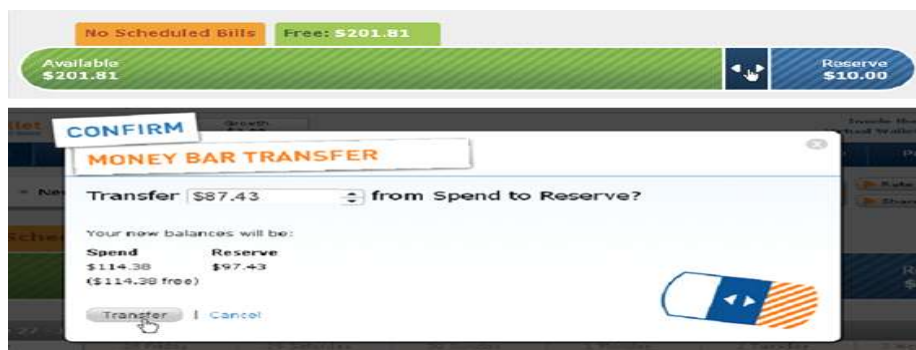
< 로그인 전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



※ 사례 : 간편 자금이체

- 미국 PNC Bank의 가상지갑 앱에 로그인하면 소비(Spend), 예비(Reserve), 저축(Growth)이라는 3가지 계좌가 개설되며 Money Bar를 통해 관리
- 본인 계좌 간 이체는 단순히 Money Bar의 커서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자금이체 완료
- 향후 스마트뱅킹에서의 자금이체는 보다 동적이고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PNC Bank의 본인계좌 간 자금이체 >



(6) 고객 참여 확대

- 예산 및 자금관리, 청구서 관리 등과 같이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
- 국내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자산현황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 관리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에 해외 선진은행들은 고객들이 월별 예산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으로 차별화 시도
- 국내은행은 청구서 지급수단은 제공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기능이 없음

※ 사례 : 예산관리 서비스

-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Bank는 고객이 지출항목을 직접 분류(예> 신용카드, 취미, 문화생활 등)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월별 예산의 각 항목 별 비율 및 지출현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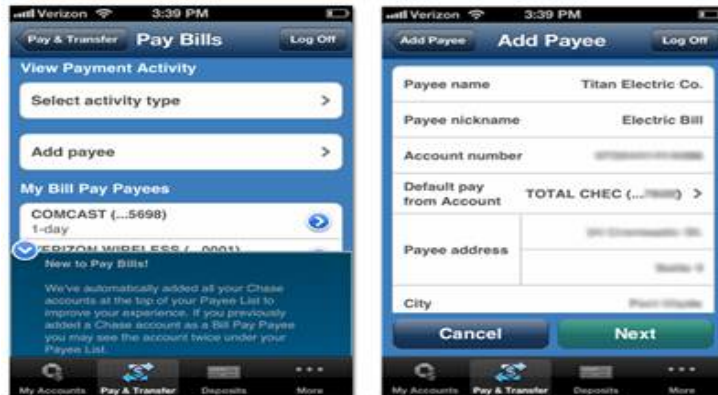
〈 Societe Generale Bank의 예산관리 〉



※ 사례 : 청구서 관리

-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는 청구서 지급 대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메뉴(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청구서 지급 대상 리스트와 남은 지급 날짜 등(좌)을 보여주고 알림 기능을 통해 청구서 지급 현황을 공지

〈 Chase Bank의 청구서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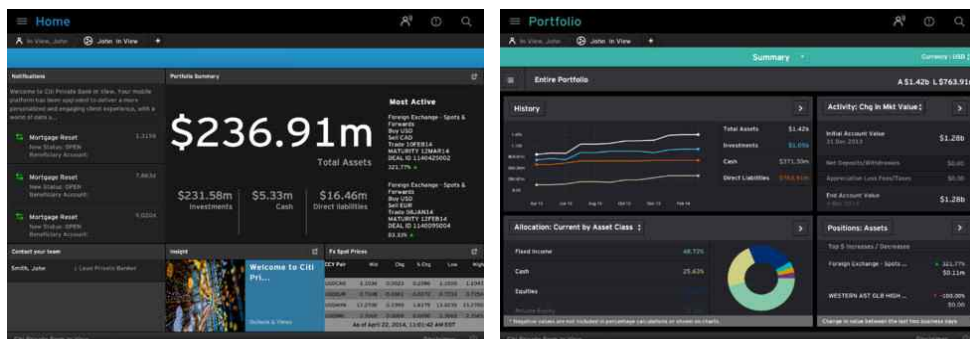
(7) 차별화 서비스 강화

□ 해외 선진은행들은 모바일의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사례 : PB 고객 특화앱

- 미국 Citi Private Bank의 PB 전용앱 'In View'는 부유층 고객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조사, 종목 추천, 수익률, 자산 배분 전략 등의 특화 서비스 제공
- 전담요원과 일대일 화상 대화를 통해 고객과 상담사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면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결과 예측 및 추천
-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고액 투자자들 가운데 40%~60%는 상담사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맞춤 투자 자문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20% 미만으로 나타남

〈 Citi Private Bank의 PB 전용앱 'In View' 〉



※ 사례 : 기타 차별화

- 영국 Barclays는 중요 문서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 제공
- 미국 Wells Fargo는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은행 담당자와 미팅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미국 Bank of America는 위치 기반의 리워드 이벤트 알림 서비스 제공

< 해외은행들의 특화 서비스 >

Barclays	Wells Fargo	Bank of America
		

(8) 웨어러블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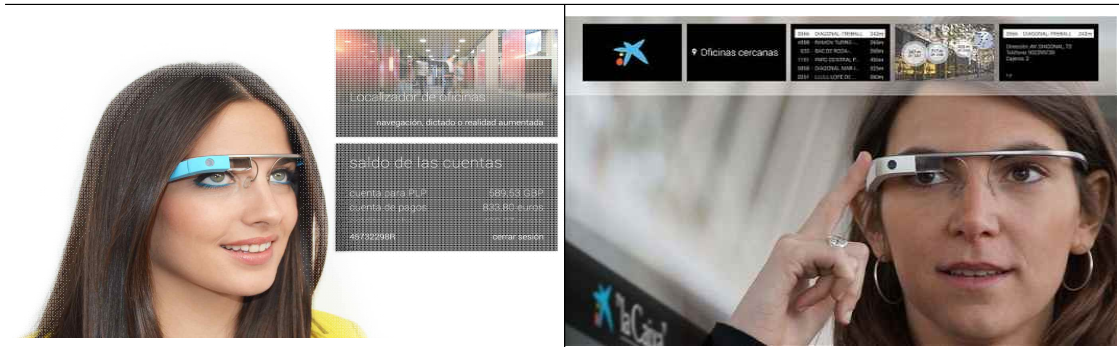
- 금융산업에서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의존하던 모바일 banking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사례 : 구글 글래스 banking 앱

-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banking 앱은 계좌조회, 계좌변동 알림, ATM 및 지점위치 찾기, 고객센터와 24시간 비디오 상담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수표입금, 동일은행 계좌간 이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 진행 중

- 스페인의 Banco Sabadell이 세계 최초로 음성 명령을 이용한 구글 글래스
뱅킹앱을 개발했으며, 그 외에도 스페인의 CaixaBank, 뉴질랜드의
Westpac, 미국의 Wells Fargo 등도 구글 글래스 뱅킹앱을 테스트 중

< 구글 글래스 뱅킹앱 구동 화면 >



주 : 시장조사업체 IMS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 글래스로 대표되는 스마트 글래스 제품이 2016년까지 940만대 판매될 것으로 전망

※ 사례 : 스마트워치 뱅킹 앱

- 호주의 Westpac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위한 뱅킹앱을 출시했으며
현재 소니 스마트워치만을 지원하지만 향후 모든 스마트워치로 확장 계획
- 스마트워치(Smart Watch) 뱅킹앱은 로그인 없이 계좌잔고액을 확인하는
단순 서비스만을 제한적으로 제공
 - 계좌조회, 계좌변동 알림, ATM 및 지점위치 찾기, 동일은행 계좌간 이체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 준비 중

< 스마트워치 뱅킹앱 구동 화면 >



주 :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스마트워치 판매량이 2014년 700만대, 2015년 2,340만대, 2016년 3,910만대, 2017년 5,5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사례 : 웨어러블 지갑

- US Bank는 MasterCard와 VITA 밴드의 제휴를 통해서 웨어러블 지갑(Wearable Wallet)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을 내장하여 50달러 이하까지 서명 없이 무접촉 결제 가능
- 웨어러블 지갑은 스포츠 및 야외활동 중 지갑이나 현금 소지 없이도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 가능
- 응급 연락처 및 개인 의료정보를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시 환자 식별 및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음

〈 US Bank의 VITA 밴드 〉



〈용어설명〉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식품, 동물, 사물 등에 IC칩(전자태그)을 부착하고 안테나를 통해 무선으로 판독기(reader)가 정보를 수신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의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유통·물류, 전자요금징수, 생산관리, 동물이력추적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 사례 : PB 고객관리

- Standard Chartered는 PB고객들과의 관계관리를 위해 Q-matic RFID System을 활용, RFID 칩이 내장된 키홀드를 소지한 PB고객이 건물에 진입하면 시스템이 즉시 지점의 매니저와 관계 매니저에게 알람을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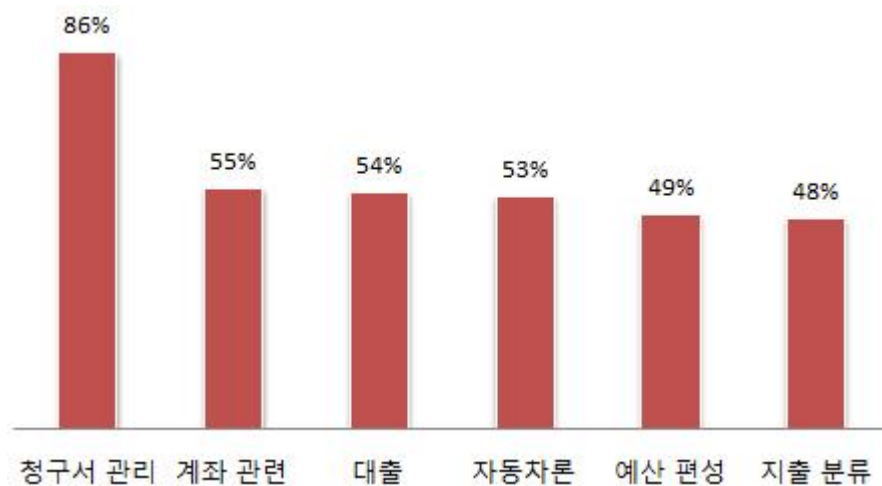
< Standard Chartered의 Q-matic RFID system >



(9) 개발예정 서비스

- Anti Group(2014)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2015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서비스는 청구서 관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계좌 관련, 대출 관련, 예산 및 지출 분류 서비스 등의 순으로 조사

< 스마트뱅킹 서비스 도입 계획 >



자료 : Anti Group, Activity-Based Markting: The Future of Mobile Marketing in Banking, 2014. 7.

2.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

(1) 지급결제 분야

지급결제 분야는 신용카드와 통장 정보를 전자지갑에 저장한 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밀번호만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충전 후 소액을 송금하는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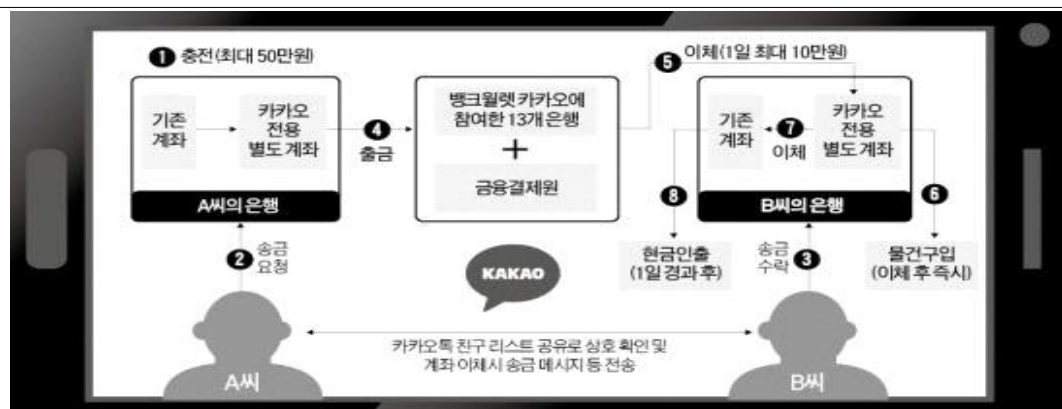
(송금 서비스)

- 해외 IT 기업의 송금 분야는 단기간에 안정적 모델로 정착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했으나 국내의 경우 높은 규제 장벽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국내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라는 전문 지급결제서비스 기관의 운영으로 은행간 송금 및 결제가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외국의 경우 IT 기업들이 금융결제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시장에 정착
- 국내 은행들은 2012년부터 자체 전자지갑을 개발하여 간편한 소액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확장이 더딤
 - 선불충전형 전자지갑은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소액 송금, 카드 없이 ATM 인출,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등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하나은행(N Wallet), 신한은행(주머니), 기업은행(IBK ONE 머니) 등이 제공하고 있음
 - 전자지갑은 동일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에만 계좌번호 없이 편리하게 소액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은행의 전자지갑은 적은 사용자 수로 실제 이용이 제한적

- 뱅크월렛 카카오도 선불충전형 전자지갑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충전,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송금,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사용 가능, ATM에서 현금 출금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예정
- 3,7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지인들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다는 편리성이 장점
- 은행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고객들, 특히 대학생 위주의 젊은층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있음(송금 수수료 100원 예상)
- 그러나 송금 수수료 면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수수료 면제 고객등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꺼려할 수 있음
- 실시간 업무처리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 특성상 익일 자금인출은 관련 서비스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물건 구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보에 시간 필요
- 몇 차례 대형 보안 사고를 경험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카카오의 보안 위협이 노출될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

뱅크월렛 카카오 결제 흐름도

(자료 : 한국경제)



< 뱅크월렛 카카오와 부산은행 스마트뱅킹 송금절차 비교 >



〈 주요 비금융 기업의 송금서비스 〉

서비스명	개요
뱅크월렛 카카오	○ 국내 15개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계좌와 연결된 전자지갑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송금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 ○ 건당 송금 수수료는 100원 예상 ○ 전자지갑에 충전된 돈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NFC기반 ATM에서 현금 출금도 가능 (한계점) ○ 송금 대상이 카카오톡 회원으로만 제한 ○ 이체된 자금은 익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음 ○ 송금액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
밴드	○ 모임회비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소액송금 기능 도입 검토 중 ○ 모임회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해 주는 'N빵 계산기' 메뉴에 '회비내기' 기능을 추가해 즉시 송금할 수 있도록 구성
구글월렛 +G메일 송금	○ 구글의 전자지갑 플랫폼인 '구글 월렛'과 G메일을 합쳐 송금 서비스 제공 ○ G메일에서 '돈 첨부하기(Attach money)'를 클릭하면 구글 월렛을 통해 돈이 전송되는 서비스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취득
페이팔	○ 페이팔 ID에 은행계좌를 등록한 후 상대방의 페이팔 ID로 송금 ○ 하나은행은 페이팔과의 제휴를 통해 '하나 글로벌 페이' 서비스 제공 ○ 해외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계수수료 및 전신료 무료
페이스북	○ 아일랜드에서 전자화폐 서비스 도입 승인 예정 ○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금융서비스업 허가를 내주면 다른 국가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passporting'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승인 후에 전 유럽에서 활동 가능 ○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전자화폐 거래와 국외 송금 서비스 가능
알리페이 /텐페이	○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송금, 결제, 대출, 펀드상품 가입까지 가능 ○ 중국인의 한국 내 가맹점 위안화 직접 결제를 위해 하나은행, 롯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등과 제휴
M-PESA	○ 케냐 1위 통신업체인 사파리콤의 송금서비스 ○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계좌가 되며, M-PESA 지점에서 충전 후에 해당 번호로 송금하면 수신자가 근처의 M-PESA 지점에서 인출하는 방식

-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법규상 직접진출이 어려워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우회진출하고 있지만 카카오가 국내에서 송금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해외 IT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 될 가능성 있음
- 최근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직접 구매 및 해외 송금을 위해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고객 인프라를 갖춘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국내 송금서비스에 나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진출은 은행의 해외 송금 건수 및 수수료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하나 글로벌 페이(하나은행과 페이팔 제휴 프로그램) 수수료 〉

수수료 구분	기존 하나은행 해외송금	하나 글로벌 페이
송금수수료	7,000원	1,100원
중계수수료	22,000원	0원
전신료	7,500원	0원
고객 부담액	36,500원	1,100원

자료 : 하나은행 홈페이지, 100달러 송금(적용환율: \$1=1,100원)시 수수료 비교

(간편결제 서비스)

- 정부가 2014년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시장을 놓고 업체 간 경쟁 심화
 -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폐지, 30만원 이상 결제시 휴대전화 인증 가능, PG사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 저장 가능, 보안사고 발생시 은행·카드사·PG사 책임 엄벌 등을 다룸
 - 온라인 결제시장은 보안을 이유로 카드사가 결제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과정에 유통업체가 관여할 여지가 없음
 -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미리 카드정보를 결제 서비스 업체에 저장한 후 이후 결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정보 입력 없이 결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PG사, 오픈마켓, IT 기업 등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출시

〈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예정) 기업 〉

구분	전자금융업자(서비스명)
PG사	LG유플러스(페이나우), KG이니시스(케이페이), 한국사이버결제(셀프페이)
신용카드사	삼성(m간편결제), 신한(앱카드) 등 각 카드사별 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 중
IT 기업	LG CNS(엠페이), SK플래닛(페이핀)
통신사	SKT와 KT는 전자지갑과 결합한 서비스 준비 중
오픈마켓	옥션·G마켓(스마일페이)
해외 IT 기업	페이팔, 아마존(페이먼트), 알리바바(알리페이), 텐센트(텐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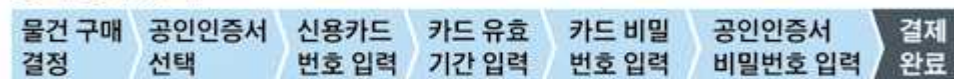
□ 최근 카카오도 ‘보안 가군’ 인증을 받은 LG CNS의 엠페이(MPay) 결제 모듈을 이용하여 '카카오 간편 결제(카카오 페이)' 서비스 개시

-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결제 모듈 제공 및 가맹점 영업 담당
- 그러나 국내 PG시장의 80%는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 CNS가 짧은 기간에 얼마만큼의 가맹점을 확보하느냐가 서비스 성패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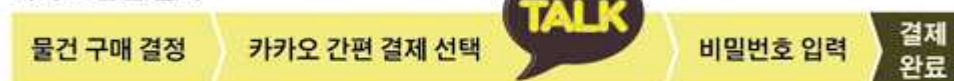
공인인증서 결제와 카카오 간편 결제 비교

(자료 : 조선일보)

공인인증서 방식



카카오 간편 결제



- 신용카드사들은 기존 PG사 외에 카카오 간편결제와 같은 IT 기업의 진출이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체적인 전자지갑을 출시하여 고객 확보에 주력
- 신용카드사 전자지갑은 모바일 카드 장착, 멤버십, 쿠폰, 빅데이터 기반 할인 가맹점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전자지갑〉

신용카드사	전자지갑
신한카드	올댓쇼핑&윌렛
삼성카드	m포켓
KB국민카드	와이즈 윌렛
롯데카드	클러치
비씨카드	비씨윌렛
하나SK카드	모비박스

- 최근 금융회사와 PG사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사고 발생시 정부·금융회사·IT 업체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
- 현재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가맹점에서 은행 계좌와 연동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확장 예상

(2) 금융상품 판매

-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넘어 대출 및 투자 중개 등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음
- 외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 및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수수료로 수익 창출
- 소비자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사와의 거래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액 대출 서비스 제공

〈 비금융 기업의 금융상품 판매 현황 〉

영역	현황
예금 및 투자중개	○ (사피리콤) 케냐 통신업체의 저소득층 예금 출시 ○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온라인 MMF '위어바오' 출시
대출	○ (알리바바) 자사 쇼핑몰 고객 대상의 소액 대출 서비스 ○ (아마존)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서비스 ○ (월마트) 소액 비즈니스 융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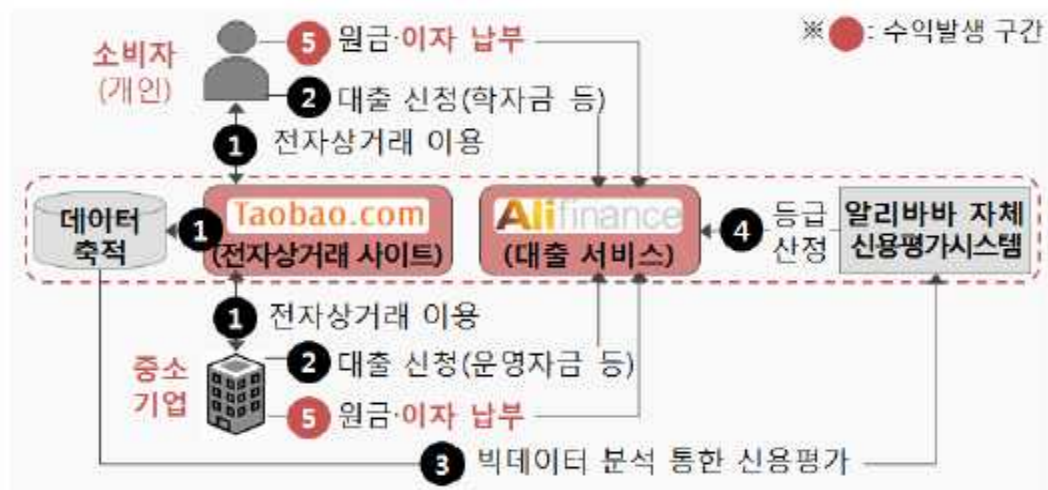
알리바바의 투자중개 사업모델

(자료 : KDB산업은행)



알리바바의 대출 사업모델

(자료 : KDB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빅데이터 수집	○ 전자상거래 거래량, 채구매율, 만족도 등(정형데이터) ○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이력, 구매후기 등(비정형데이터) ○ SNS, 포털 등의 데이터 확보 및 내부 데이터 연동(외부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활용	○ 데이터 분석가를 포함한 150여명의 전문 IT 인력 운영 ○ 신청자의 대출상환 능력 및 의지를 정성적으로 도출하여 대출 적격여부 판단, 당일 대출처리 지향

- 국내의 경우 전자금융법에서 비금융기관의 일반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은 제한적

〈 국내 비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업 진출 규제 현황 〉

구분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 비금융기관은 여·수신, 증권, 보험 등 일반적 금융업무 영위 불가 ○ 단, 아래 일부 전자금융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 또는 등록 후 수행가능
일부 가능한 전자금융 업무	(허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등록) 전자 자금이체,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 대행, 결제대금 예치, 전자고지결제

자료 : KDB산업은행, 2014, 재인용

- 국내 IT 기업들은 당분간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이나 예금의 직접적 금융상품 운영보다는 투자중개 업무로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 해외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규제 내용 〉

국가	내용
중국	○ 금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포함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장려 ○ 최근 국영은행들이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규제를 촉구 했으나 정부는 ICT 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에 대해 민영은행 설립 시범 사업권 부여
일본	○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
유럽	○ 패스포팅(passporting)규정에 따라 EU 국가 중 한 국가에서 금융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EU 전체에서 금융업 수행 가능

자료 : 월간 마이더스, 2014. 6.

3.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 최근 IT 기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기술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지급결제, 자산관리, 클라우드펀딩 등의 금융 서비스와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의 업무 관련 기술을 개발
- Accenture(2014)에 따르면 전 세계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의 핀테크 기업들은 9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전 세계 투자액의 32%를 차지
- 그러나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 시리즈 A 투자액(5~10억 정도)의 경우 47%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반면 실리콘밸리는 27% 수준
- ❖ 영국정부는 핀테크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를 설립, 핀테크 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테크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후원, 금융업무감독청(FCA)은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관련자문서비스 제공

〈용어설명〉 핀테크(FinTech)

-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준법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 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업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술을 총칭
-

〈참고〉 벤처기업 투자단계

- 창업생태계는 크게 벤처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대기업, 정부로 구성
 - 초기 벤처기업은 인큐베이터나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을 받아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초기 자금인 시드머니(Seed money)를 조달
 - 액셀러레이터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자립한 벤처기업은 이후 추가 자금을 단계별로 조달하는데 금액별로 시리즈 A, B, C, D 순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시리즈 A가 5억~10억원 정도이며 시리즈 B부터 금액이 점점 늘어남
 -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진행되는데 크게 6가지 단계 정도로 구분됨
(Preseed Money → Seed Money → Series A → Series B → Series C → Series D)
-

- 금융회사들도 미래 기술확보를 위해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내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참고〉 최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

- 2014년 Santander(1억달러) 및 HSBC(2억달러)는 자사의 금융기술 향상을 위해 자체 조성한 핀테크 벤처펀드를 통해 각각 창업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 Barclays도 금년 런던에서 핀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촉진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me)을 출범하였으며, UBS는 자체 직원과 외부 전문기술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기술개발프로젝트를 담당
- Wells Fargo는 금융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웰스파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디지털 랩(lab) 설립
- 2013년에는 러시아의 Sberbank(1억달러) 및 스페인의 BBVA(1억달러)에서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

- 핀테크 기업들은 주로 5가지 금융영역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 집중

〈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영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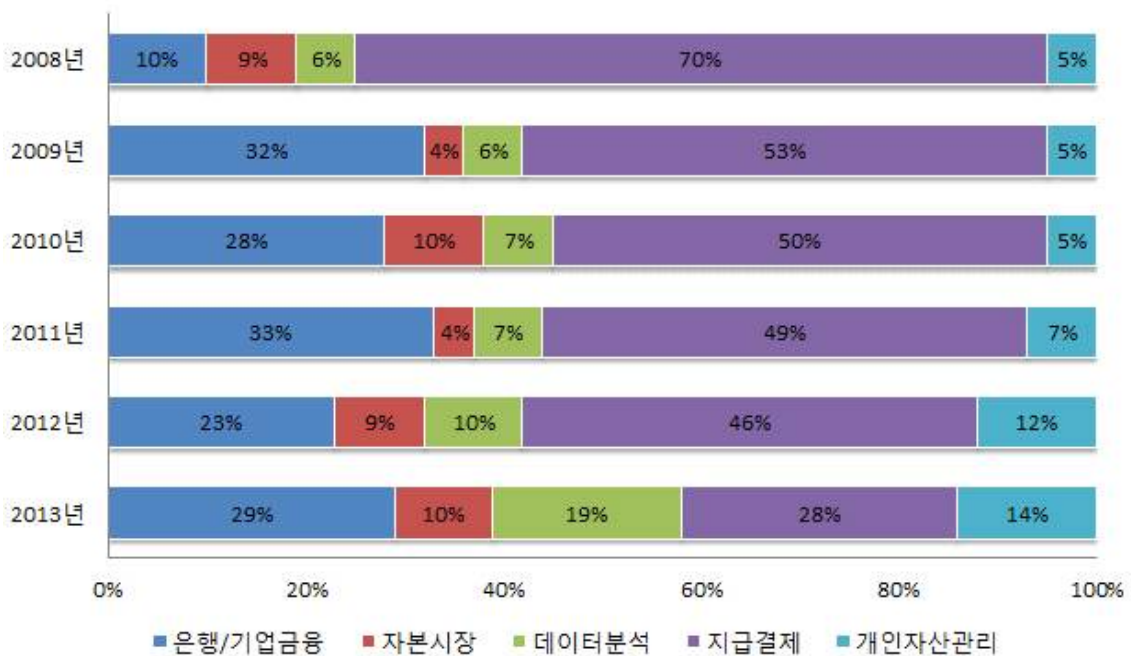
금융영역	설명	주요기업
자본시장	외환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SecondMarket, eToro, Xoom, OANDA, CurrencyCloud, TransferWise
지급결제	결제처리 비용 절감, 가상화폐 및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이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Square, Boku, Stripe, Braintree, Monitise, Klarna
데이터 분석	리스크관리, 사기탐지, 보험료 및 신용점수 계산 등을 포함한 금융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Markit, DataSift, Lifelock, Wonga, Credit Karma, Opengamma
은행/기업 금융	전통적 은행 업무나 기업 금융을 보완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OnDeck Capital, Lending Club, Prosper, CommonBond, Wonga, Borro, Kabbage
개인자산 관리	주식 포트폴리오, 개인 예산 및 세금 등의 다양한 개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Betterment, Wealthfront, Yodlee, Intuit (Mint), Nutmeg, Learnvest

자료 : CB Insights, 2013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초기 지급결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에는 다양한 금융영역에 고루 분산되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데이터분석과 개인자산관리 영역에서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변화 〉



※ 사례 : 핀테크 기업사례

- 미국 모바일 금융기술 개발회사인 Ondot는 고객 스스로가 신용카드 지불 방법을 통제하며 모든 카드 활동에 대해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 Lone Star National Bank에서 도입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
- 카드 결제 가맹점 유형(예>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 및 카드 거래 유형(예> 온라인쇼핑, ATM, 청구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과 사용중지를 설정 가능, 카드별로 다양한 결제한도(예> 거래한도, 월별한도, 주간한도 등) 설정 가능, 카드의 사용지역을 설정한 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을 벗어날 경우 부정사용으로 카드 사용 차단

< 핀테크 대기업 Top 10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기업명	2013년말 총수익	금융기술 영역 수익	금융기술 비중(%)
1	IBM	104,500	28,215	27
2	Hewlett-Packard	120,400	13,244	11
3	Dell, Inc.	62,100	7,452	12
4	Microsoft	72,940	5,835	8
5	Fujitsu	43,817	5,696	13
6	Accenture	27,900	5,580	20
7	Cisco Systmes, Inc.	46,100	5,532	12
8	Oracle Corporation	37,200	5,208	14
9	Intel	53,300	4,797	9
10	EMC	21,700	4,557	21

< 핀테크 벤처기업 Top 10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기업명	2013년말 총수익	금융기술 영역 수익	금융기술 비중(%)
1	FIS	5,808	5,111	88
2	Tata Consultancy Services Limited(TCS)	11,177	4,779	43
3	Fiserv, Inc.	4,482	4,482	100
4	NCR Corporation	5,730	3,180	55
5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7,346	3,035	41
6	Diebold, Inc.	2,992	2,730	91
7	SunGard	4,263	2,520	59
8	Infosys Limited	7,231	2,457	34
9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3,739	2,234	60
10	Wincor Nixdorf Inc.	3,046	1,981	65

4. 인터넷 전문은행

(1)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등장 배경

- 1996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 영국, 일본 등에서 경쟁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낮은 IT 기술 및 브랜드 인지도로 실패
 - 전통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조차도 처음 도입된 시기로 고객들이 기술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적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음
 - ❖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지점과 같은 물리적 대면 거래 공간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으로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대표적 온라인 채널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 그러나 최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모두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널만을 운영하는 전문은행들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문)은행, 디지털 온리 뱅크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1년 SK텔레콤, 롯데, 코오롱 등의 대기업과 안철수 연구소가 공동출자 방식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가칭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바 있음
 - 2008년 정부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 위반 소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소지
-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뱅킹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거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실적이 향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시 성장 가능성 주목

□ 국내의 경우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 확대, 소비자의 편익 증대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

-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임

(2)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형태

□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주로 금융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제조업체(GM 계열의 Ally Bank)나 유통업체(세븐일레븐 계열의 Seven Bank)가 설립·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설립 초기 무점포형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ATM 확대 및 오프라인 지점을 개설하여 영업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

〈해외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주체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특징
밀레니엄 BCP (포르투갈)	액티보뱅크	○ 금리 경쟁력으로 도시의 젊은층 공략 ○ 오프라인 지점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14개로 최소 운영
BNP 파리바 (프랑스)	헬로뱅크	○ 모바일 전용 은행 ○ 휴대폰번호를 계좌번호로 활용 ○ 트위터로 고객상담
Charles Schwab (미국 증권사)	Charles Schwab Bank	○ 2014년 3월 기준 총자산 1,033억달러로 미국내 1위 인터넷 전문은행 ○ 2008년 이후 11개의 오프라인 점포 설치
Sony 파이낸셜 홀딩스	Sony Bank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상품 판매에 집중 ○ 2013년말 기준 총자산 2,068억엔

-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순수한 디지털 온리 뱅크(Digital only Bank)인 ‘Atom Bank’가 영국에서 2015년 출범 예정
 - 디지털 온리 뱅크는 지점이 전혀 없으며, 자체 IT를 보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아웃소싱함으로써 지점 설치와 IT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
 - Atom Bank의 경우 Fiserv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하여 은행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받고 고객 1계좌당 연간 5파운드, 다중 계좌 고객은 연간 25파운드의 비용을 제공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산분리의 문제로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당국이 금산법 개정을 시도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은행들간의 또 다른 시장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또 다른 문제인 고객실명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공인인증서 및 기타 생체인식방법 등으로 대체하거나 다이렉트 banking(영업사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실명확인)을 이용해야 할 것임
 - 인터넷 전문은행은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 대비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이자를 제공하여 고객이 차별성을 인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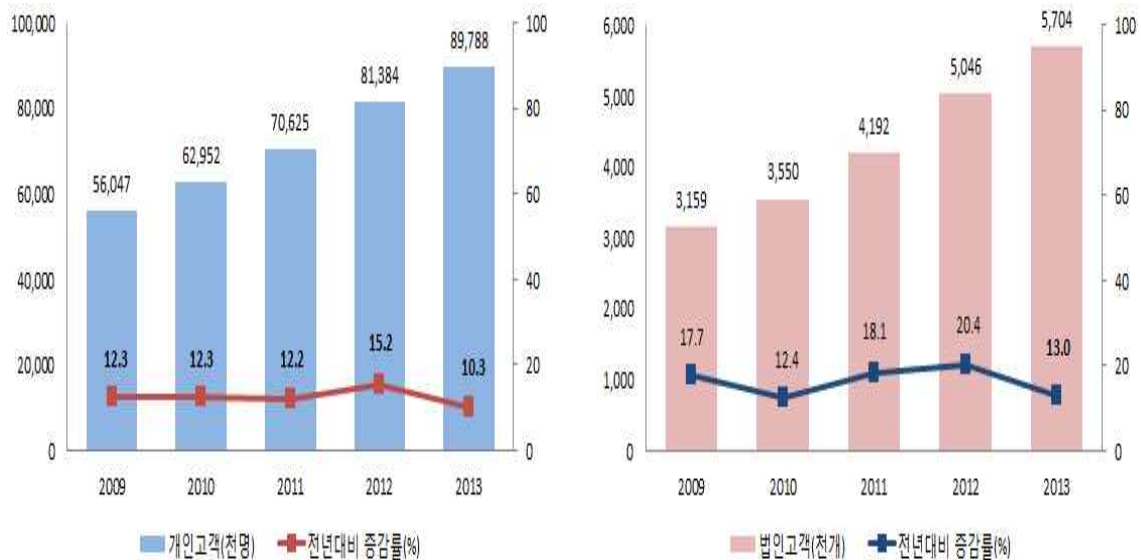
〈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기준 〉

국가	인가기준
미국	○ 통화감독청, 저축기관감독청과 각 주별로 기존 법규 내에서 인가 ○ 인터넷 전문은행의 별도 인가기준 없음
영국	○ 일반 상업은행 인가기준과 동일 ○ 다만 컴퓨터시스템의 적정용량 및 신뢰성, 백업체제, 데이터 완전성, 안전성, 기록유지체제 등 감독기구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일본	○ 기본적인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 ○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공 ○ 주로 예금조달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자산관리서비스, 카드서비스 등에 특화된 형태

<부록 1 :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현황>

- 2013년말 국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 등록된 개인고객 수는 8,979만명으로 연 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법인고객 수는 570만개로 연 평균 16.3%의 증가율을 보임
 - 2013년 동안 실이용 개인고객 수는 4,753만명(49.8%), 법인고객 수는 280만개(49.0%)로 나타남
 - 개인 및 법인고객 수 모두 2013년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당분간 연 10% 내외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 현황 >



- 2013년말 국내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3,719만명으로 연 평균 16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 4,993만명(IC칩 방식 433만명, VM 방식 842만명) 중 55.2%가 스마트폰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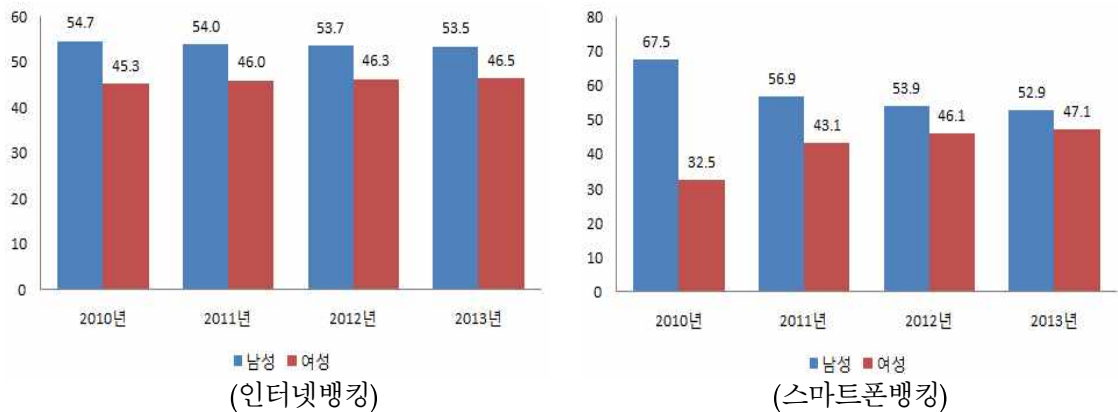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등록고객 현황 〉



□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성별구성은 초기 남성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여성의 비율이 절반수준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여성 사회활동 인구의 증가 및 온라인에 익숙한 신세대 주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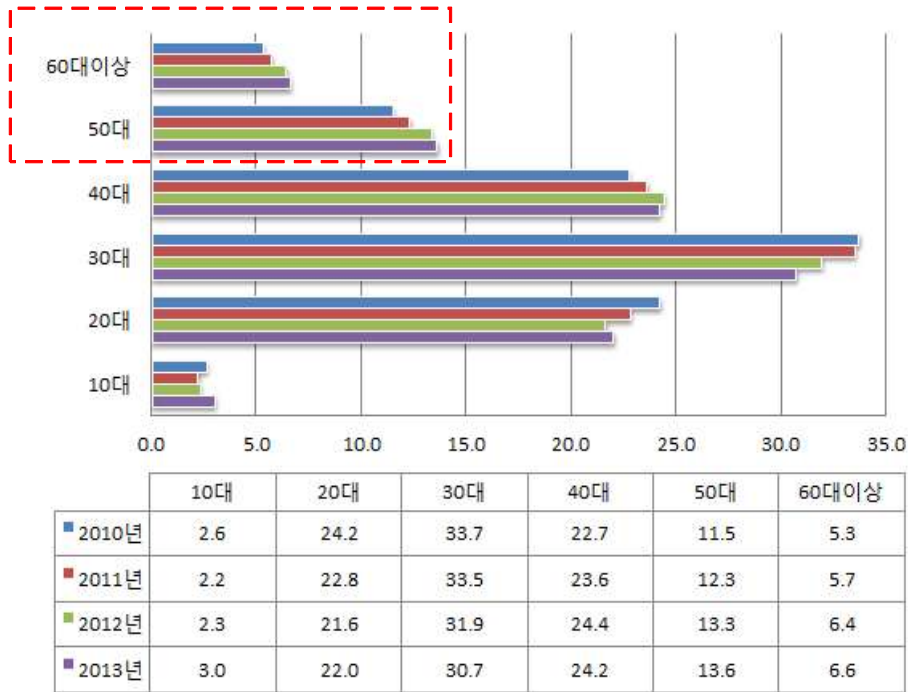
〈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의 성별 비율 〉



□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연령대 구성은 2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나 최근 50~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미비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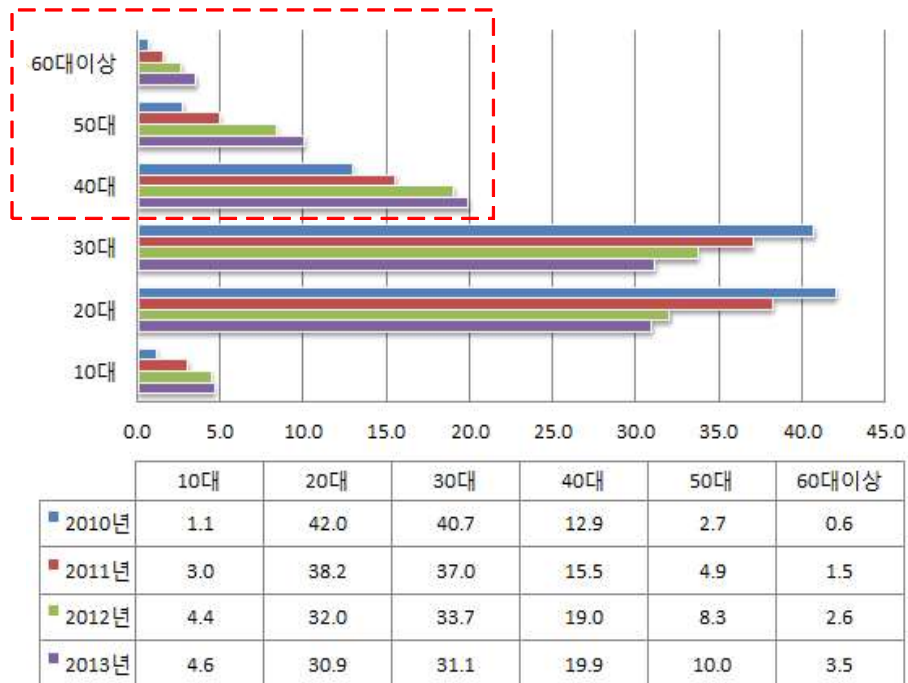
- 인터넷뱅킹이 이미 대중화된 시점에서 주 사용층인 20~30대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의 연령대 구성 현황 >



- 스마트폰뱅킹은 본격적인 확산 시점으로 선도적으로 등록했던 20~30대 비중은 감소한 반면 40~60대 이상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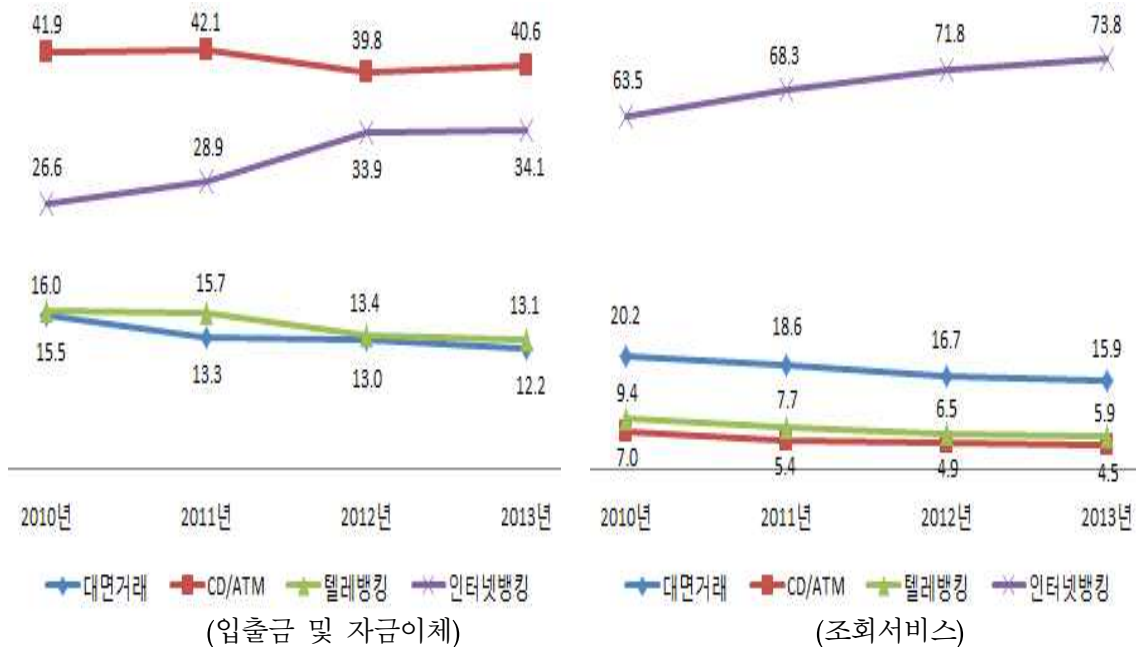
<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의 연령대 구성 현황 >



□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지속

- 입출금 및 자금이체의 경우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CD/ATM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인터넷뱅킹의 비중도 점진적 상승 추세
- 조회서비스의 경우 이용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뱅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을 차지
- 대면거래의 경우 2013년말 기준으로 입출금 및 자금이체가 12.2%, 조회서비스가 15.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



□ 한편, 전국 은행들의 스마트뱅킹 실질이용률은 70% 내외로 조사

- 국민은행의 실질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에 우리은행의 경우 타행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3년 들어 IBK기업은행의 이용률이 크게 상승

〈 국내 시중은행의 스마트뱅킹 가입자 및 이용현황 〉 (단위: 만명)

구분	가입고객 수			이용고객 수			실질 이용률*	
	2012년	2013년	증감율	2012년	2013년	증감율	2012년	2013년
국민은행	546	800	46.5%	501	627	25.1%	91.8%	78.4%
신한은행	447	677	51.5%	317	464	46.4%	70.9%	68.5%
우리은행	757	962	27.1%	321	419	30.5%	42.4%	43.6%
NH농협	246	356	44.7%	182	253	39.0%	74.0%	71.1%
IBK기업은행	167	295	76.6%	108	215	99.1%	64.7%	72.9%
하나은행	102	197	93.1%	86	141	64.0%	84.3%	71.6%
부산은행	36	49	36.1%	28	35	25.0%	77.8%	71.4%
합계(평균)	2,301	3,336	(53.7%)	1,543	2,154	(47.0%)	(72.3%)	(68.2%)

* 실질이용률 = 이용고객 수 / 가입고객 수
 자료 : CEO스코어, 2014. 2.

<부록 2 : 사례 상세 화면>

알림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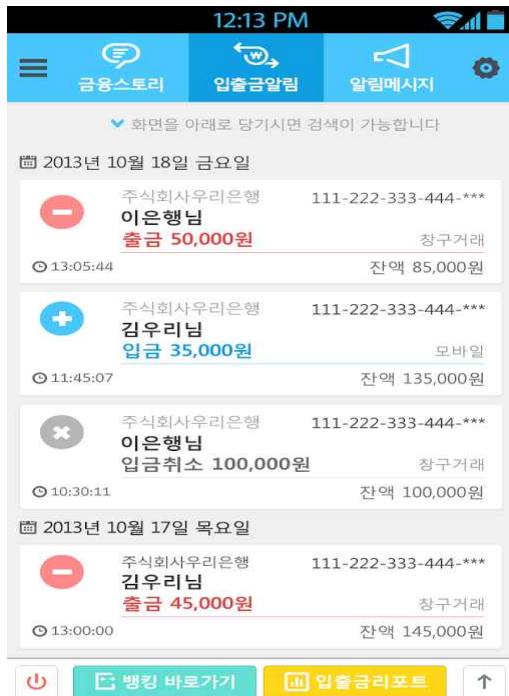
< 신한 Smile >



< IBK ONE 알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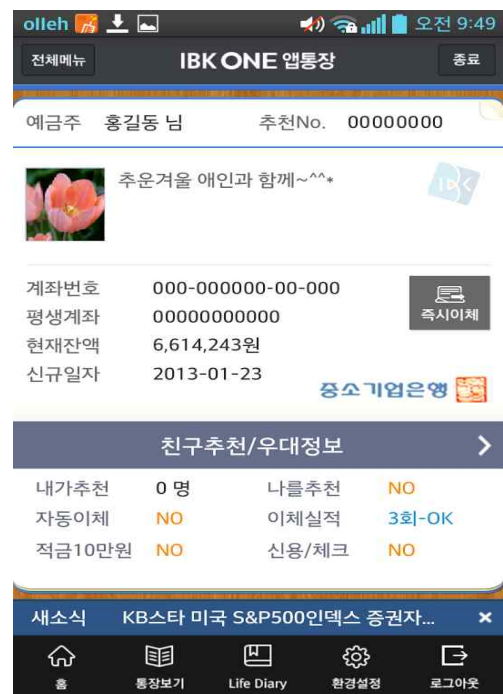


< 우리은행 원터치 알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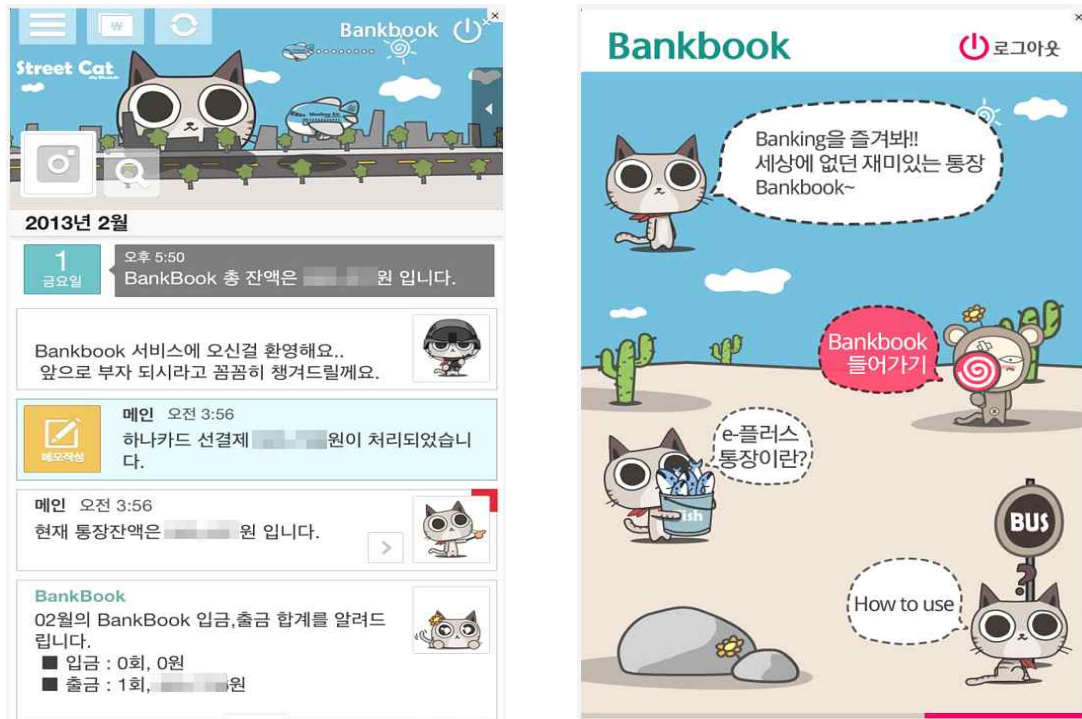


모바일 통장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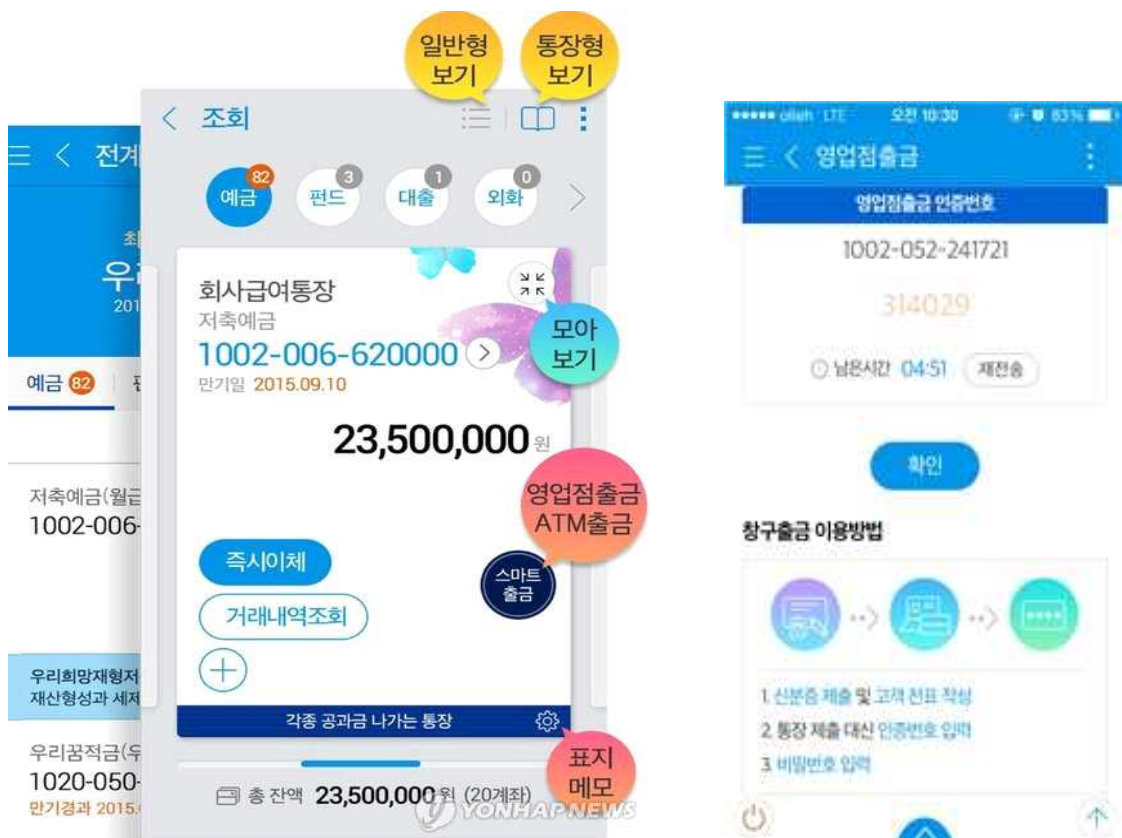
< IBK 앱 통장 >



< 하나은행 뱅크북 >



< 우리은행 원터치 개인뱅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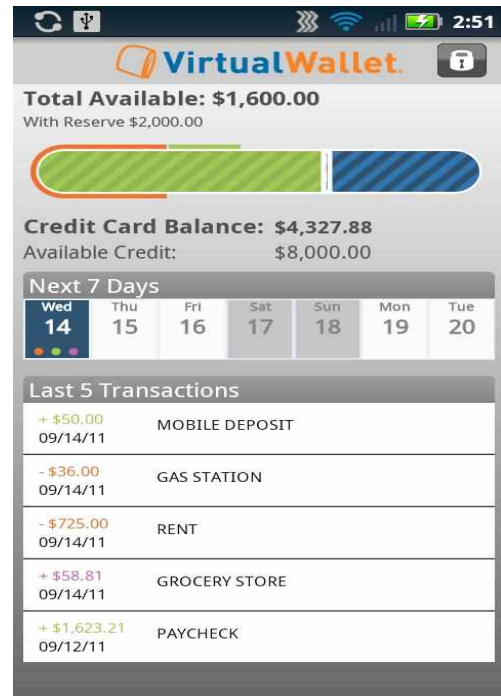


프로세스 단축

< 로그인 전 계좌잔액 조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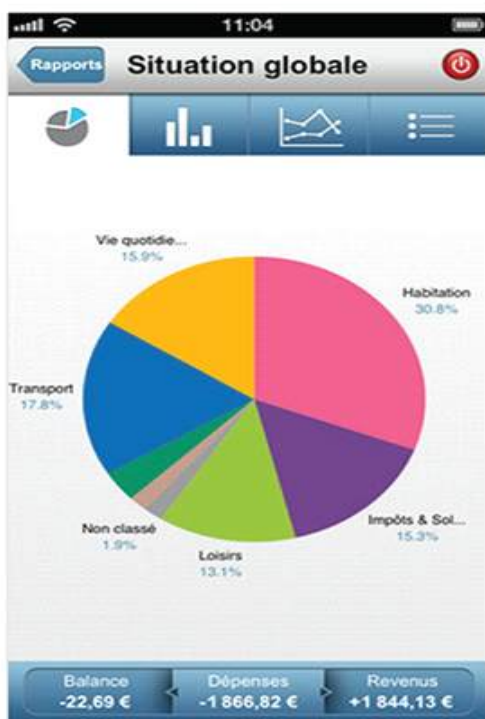


< 간편 자금이체 >



고객 참여 확대

< 예산관리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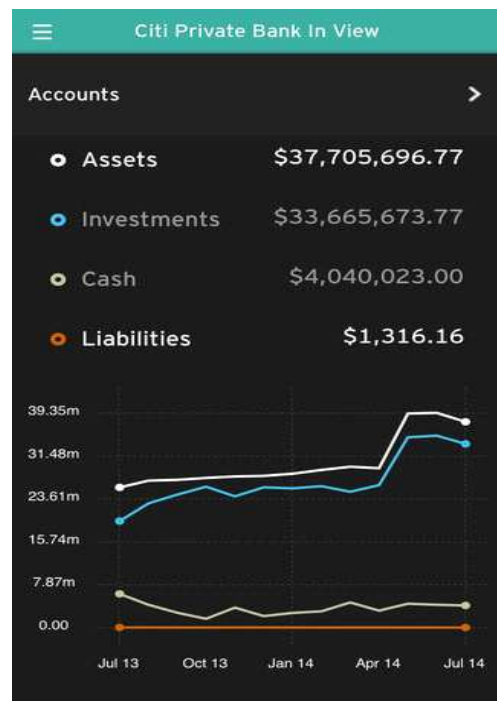
< 청구서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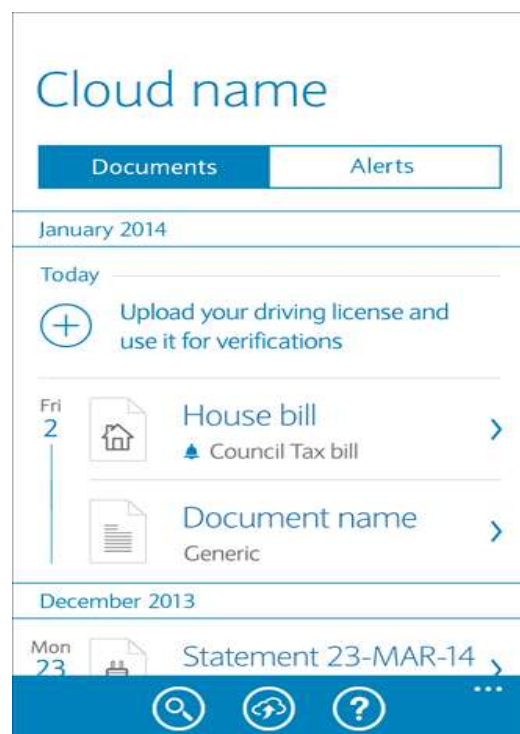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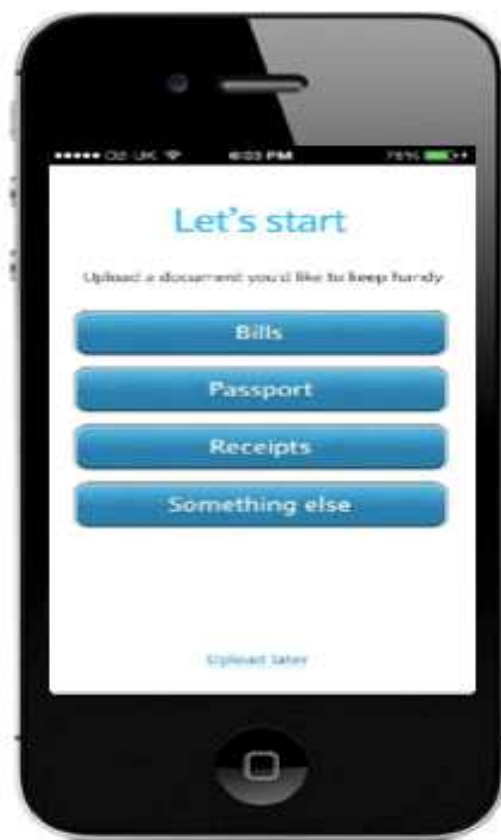
차별화 서비스 강화

< PB 고객 특화앱 - Citi Private Bank의 'In Vie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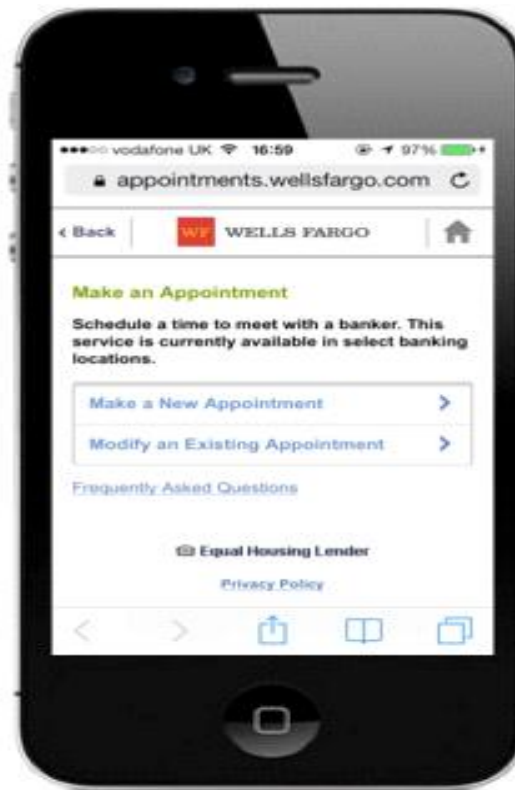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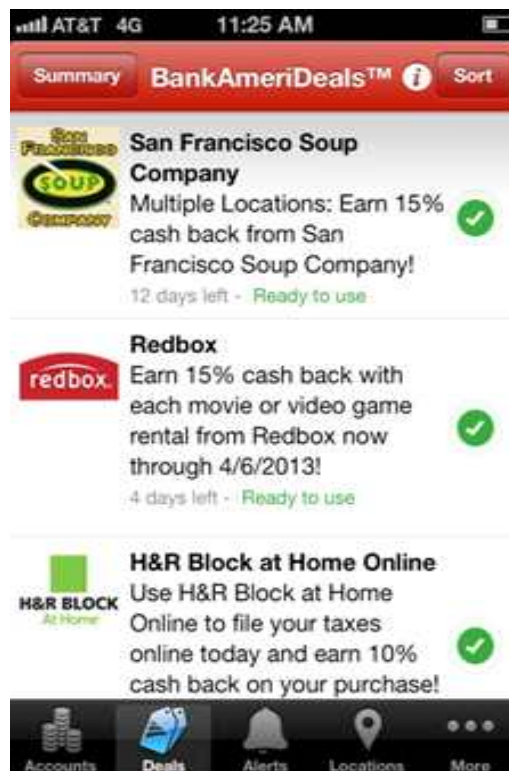
< Barclays의 Cloud Service>



< Wells Fargo의 Make an appointm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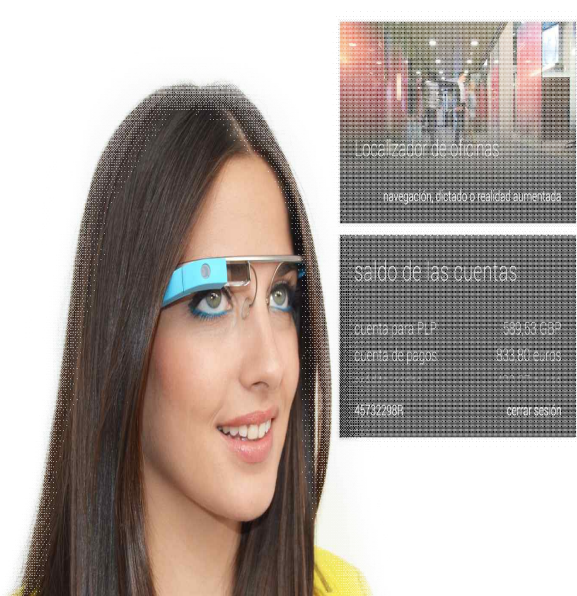


< Bank of America의 Deals >



웨어러블 banking

< 구글 글래스 banking 앱 >



< 스마트워치 뱅킹앱 >



< 웨어러블 지갑 - US Bank의 VITA 밴드 >



< PB 고객관리 - Standard Chartered Q-matic RIFD System >



핀테크 기업 사례

< 신용카드 관리 시스템 >

